



Creative

방송시스템 설비, 기술연구부터
방송프로그램제작, 중계, 편집까지
방송기술 전반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2013년 하반기 동호회 행사 일정 확정

신사옥 상가 수익 동호회 활동 등 대폭 지원

골프 9.27 충주 중원CC 낚시 10.11 김포 강화일원
등산 10.23 북한산 둘레길 바둑 11.6 사우회 사무실
원로 산업시찰 10.31 월성 원자력발전소 송년의 밤 12.12 가든호텔

7·8월 무더위로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사우회가 골프대회를 시작으로 올 하반기 동호회 행사에 들어간다. 일정은 다음과 같다.

골프대회 : 하반기 행사의 테이프를 끊는 가을철 골프대회가 9월27일 금요일에 충주 중원골프클럽에서 열린다.

10개팀 40명 출전을 목표로 골프장과 섭외를 하고 있다. 티업시간은 출전이 확정된 회원들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낚시대회 : 10월11일 금요일에 실시한다. 장소는, 김포와 강화 일원을 사전 답사한 뒤 월척이 많이 나올것으로 예상되는 곳으로 정한다.

등산대회 : 10월23일 수요일에 북한산 둘레길을 걷는다. 여덟때와 마찬가지로 오전 10:00에 출발한다.

자세한 코스와 출발장소는 사전답사를 한 뒤 결정해서 전회원에게 우편엽서를 발송한다.

원로회원 산업시찰 : 10월31일(목)과 11월1일(금) 이틀동안 실시할 예정으로 있는 이번 산업시찰은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번 월성

원자력발전소를 가게 된다.

봄철 문화탐방때 함께하지 못한 조금은 젊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바둑대회 : 11월6일 수요일 10:00에 사우회 사무실에서 대진을 추천하면서 시작한다. 바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5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송년의 밤 : 12월12일 목요일 저녁 6:00에 서울 마포 가든호텔에서 개최한다.

한편 2010년부터 올해까지 4년동안 사우회에 가입한 회원은 209명에 달하고 있다.

년도별로는 2010년에 51명, 2011년에 90명, 지난해에는 18명, 그리고 올해는 9월 15일 현재 50명이 가입했다. 그만큼 젊은 회원들이 늘었다는 증거이다.

이번 골프-낚시-등산-바둑대회에는 이들 젊은 회원들의 참가를 기대하면서 동호회가 더욱 활성화되는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

8월 29일 올해 첫 회장단 간담회



올 첫 사우회 회장단 간담회가 8월 29일 (목) 사우회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날간담회에는 김수량 회장(사진)과 부회장 5명, 감사 2명, 사무처 2명 등 10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MBC가 사우회에 분양하기로 한 상암동 신사옥 상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의견을 나누었다.

참석자들은 고정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업종은 무엇인지? 직영 또는 전대 문제, 비영리 법인이 수익(영리)사업을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관심을 나타냈다.

김회장은 사단법인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수익을 극대화 할 수있는 업종을 선택해서 동호회 활동 등에 대폭적으로 지원할것이라고 말하고 나머지 문제와 앞으로의 절차는 MBC 관계자들과 협의해서 처리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방문진, 이론 실무 갖춘 언론계 초빙교수 확정

편제 - 이재갑 조중현 보도 - 강성주 배대윤 최용익 이상용

사우회 이재갑-조중현(이상 편제부문), 강성주-배대윤(이상 보도부문) 회원이 방송문화진흥회 초빙교수로 확정돼 9월 가을 학기부터 대학 강단에 서고 있다.

이재갑(전 TV제작 본부장) 회원은 전북 대학 신문방송학과에서, 조중현(전 MBC미술센터 사장) 회원은 카이스트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에서, 강성주(전 포항MBC 사장) 회원은 경북 대학 신문방송학과에서, 그리고 배대윤(전 충주MBC 사장) 회원은 부산대학 신문방송학과에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재갑



조중현



강성주



배대윤

이들은 우선 1년간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며 강의 실적에 따라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들 외에도 MBC 보도국 출신의 최용익(대전대 신방과), 이상용(카이스트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씨가 방문진 초빙 교수로 선발됐다.

방송문화진흥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번째로 강원, 경기, 충청, 호남, 영남등 전국 5개 권역에 기자, PD출신 10명의 초빙교수를 파견해서 오랜 기간 현장에서 익힌 실무와 이론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게 하고 있다.

|알림|

2014년도 사우회 회원수첩 도로명 주소로 제작

회원님들의 도로명 주소를 10월31일까지 알려주세요.

사우회 전화 02-722-7416이나 사우회 홈페이지 mbcsau.com 게시판

전국의 모든 공부상 주소가 내년 1월1일부터 도로명 주소로 바뀌게 됩니다.

사우회는 정부의 시책에 호응하기 위해서 2011년 10월15일에 발행한 사우회보 제9호에 이와같은 사실을 알리고 지난 2년동안 회원들의 도로명 주소를 신청받았으나 성과가 극히 미미했습니다.

그러나 올해까지 계몽기간이 끝나고 내년 부터는 도로명 주소가 일제히 사용되기 때

문에 사우회도 도로명 주소를 기입해서 2014년도 회원수첩을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도로명 주소를 10월31일까지 사우회 전화 02-722-7416이나 사우회 홈페이지 mbcsau.com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회원수첩 제작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MBC사우회 도로명 주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정동)'입니다.



방송시스템 설비, 기술연구부터
방송프로그램제작, 중계, 편집까지
방송기술 전반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 사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쉬’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쉬는 것이 진정한 ‘쉬’인가?를 연구하는 「쉬 전문연구소」 대표 김만섭(기술, 사진) 사우는 국내 최초의 ‘쉬Planner’다.

이런저런 불안과 염려, 스트레스 때문에 맘 편히 쉴 수 없는 사람들, 특히 잠시라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불안한 ‘노모포비아’(No mobile phobia) 증상을 앓고있는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쉬’이 무

엇인지 가르쳐 주기 위해 그는 현재 몇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1982년 기술직으로 입사하여 29년 근무하는 동안 행정학박사(조사방법론 전공) 학위를 취득하였고 정년퇴직하던 2011년부터 일산 ‘동풍교회’에서 전도사로 시무하고 있는 그는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목회과’에 재학 중이다.

무종교였던 그가 하나님의 존재를 처음 인식했던 것은 1984년, 사랑하는 아들이 중병으로 신음할 때였고 2005년 “뜨거운 성령체험”을 한 뒤 2009년 4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을 직접 받았지만 ‘쉬’에 대하여 그가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08년이다.

당시 그가 근무하던 여의도 7층 라디오 9스튜디오는 ‘맘 편한 쉬터’로 소문이 나서 생방이나 녹음이 없는 시간이면 PD 4명, 가수 3명과 이들의 매니저, 동료직원 2명 등 12~3명이 고정으로 드나들며 그들이 겪고 있는 삶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토로하곤 했었다.

그 자신 믿었던 이웃에게 꽤 큰돈을 빌려줬다가 떼이면서 재물과 사람을 동시에 잃어버린 아픈 경험을 했던 터라 그들과의 대화가 공감 속에 이뤄졌고 자연스럽게 서로를 위로하는 기도모임으로 발전하였으며 여기서 ‘쉬’에 대한 그의 관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잘 쉬는 것은 힐링입니다

- 국내최초 쉬 플래너 김만섭 기술

“그 때 알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잘 쉬는 것인지 모른다는 것을요. 잘 쉬어야 일도 잘 할 텐데 말예요” 당시 그가 깨달은 ‘진정한 쉬’은, 그냥 쉬는 ‘rest’가 아니라 ‘care’ 또는 ‘healing’이었다.

그 이후 그는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잘 쉴 수 있을지 연구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사람을 포함한 생명체의 쉬에 관련된 체험연구방법론을 체계화하고 이론의 구성

은 그 자신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이한 것은, 사람 뿐 아니라 곤충들의 쉬도 연구대상이라는 것이다.

오랜 관찰 결과 곤충들이 사람보다 쉬는데 있어서 더 지혜롭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들의 지혜를 통해서 배울 점이 많았다고 한다.

‘가정 쉬 캠프’와 더불어 대학교 졸업반을 대상으로 ‘일(work)과 쉬’에 대한 강

아들 중병과 성령 체험 등 참고경험거치며 인생 대전환

어떻게 쉬는 것이 진정한 쉬인가를 가르쳐주는 쉬 전문연구소 세워

그의 여의도 스튜디오는 ‘맘편한 쉬터’로 소문나 동료들 몰려들어
쉬에 쉽게 접근하는 방법론 담은 책 올 가을 출간 예정

을 하는” 「스피레스트(spirest) 쉬 전문연구소」를 개설했다.

처음 12~3명으로 시작했던 인원이 지금은 서울, 대구, 대전, 청주, 영월에서 지역별로 모임을 갖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68가정이 가족단위로 참석한다. 또한 매년 네 차례 정기적인 전체모임을 갖는데 이에 필요한 경비는 전액 연구소가 부담한다.

심령의 기쁨과 마음의 평안 그리고 육신의 만족함을 느끼는 ‘쉬’을 얻은 사람들이 쉬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자신이 체험한 방법을 나누주는 이른바 릴레이식 모임의 반

의도 진행하고 있는 그는 요즘 그동안 진행된 연구를 집대성한 보고서 작성에 여념이 없다.

사람의 쉬에 연관되어 작동되는 종속변인과 독립변인, 그리고 매개변인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쉬’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방법론을 제시하는 내용이다. 올 가을 이 보고서가 세상에 나오면 그는 더 바빠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못하는 사우들의 많은 관심이 있다면 그는 매우 행복한 것으로 보인다.

글/ 김상욱 편집위원

곤들은 밤새도록 쉼없이 손맛을 봤다

올 1차 밤낚시 8월 8~9일 아산 봉재 저수지를 다녀와서



곤들이 가장 좋아하는 밤 낚시가 8월8일(목)과 9일(금)에 걸쳐 아산 봉재저수지에서 실시됐다. 8일과 9일은 울산 지방이 38.8도, 강릉

지방이 37.5도를 기록하는 등 전국적으로 가히 살인적인 날씨를 보여준 날이었다. 그러나 봉재저수지는 바람이 적당히 불어 도시에서 느꼈을 무더위를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었다.

그런데 곤들사이에서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고, 물결이 일면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는 얘기가 오고 갔다. 차라리 비가 오는게 낫다는 것이었다. 그래서였을까? 김종수-이용재-정종국 등 몇몇 회원이 20Cm가 넘는 붕어를 잡아 손맛을 보기는 했으나 전반적으로 입질이 없어 낚싯대는 건성으로 드리운 채 해가지기를 기다리는 회원들이 늘어갔다. 해가 지면 바람이 잘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일찌감치 저녁을 먹고 7:40쯤 해가 지자 기대했던 대로 바람도 잦아들었다. 회원들은 본격적으로 밤낚시를 준비했다.

1년전인 지난해 8월2일 밤낚시, 보름달이 휘영청 밝았고 사방이 흰했다. 끝도없이 펼쳐진 15만평 봉재 저수지가 달빛아래 아름다웠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달이 밝으면 고기도 쉼다는 사실을 간과한채 밤낚시에 나섰다가 녹조만 구경하고 되돌아선 어이없는 실수가 있었다.

그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올해는 보름밤을 피했기 때문에 사방은 캄캄했고 조용했다.

이따금 어디론가로 날아가는 헬기 프로펠러 소리가 잠시 정적을 깼을 뿐 헬기가 지나가고 나면 사위는 다시 고요와 침묵이 찾아왔다. 밤 9:50쯤 이정오(기술) 회원이 27~8cm(이하 모두 추정)로 보이는 붕어를 건어 올렸다.

월척도 가능 할 것이라는 신호탄이었다. 이어 10:30쯤 관록의 송재선(업무) 회원이 28Cm 짜리 붕어를 낚았다. 조동호(관리)-안호선(관리) 회원은 40~45cm짜리 잉어를 잡았다.

그리고 새벽 2:00, 드디어 월척이 걸려들었다. 밤낚시는 새벽이라야 제격이라며

바람불어 좋았으나 입질없어 서운

달이 밝으면 고기도 쉼다는 ‘보름달 밤낚시’ 악몽떠올라

밤낚시는 새벽이 제격, 비우고 기다리면 오는 법
좌대위에서 자다가 찌가 요동쳐 땀기니 월척이더라

미리 준비해온 1인용 침구를 좌대위에 깔고 10:00쯤 잠을 청했던 박승선(관리) 회원의 낚싯대 찌가 두어 차례 흔들렸다.

순간을 놓치지 않고 노련한 솜씨로 낚싯대를 끌어 올리자 보기에 도 예쁜 큼지막한 붕어 1마리가 수면위에서 요동쳤다. 32Cm 짜리 월척이었다.

여기저기서 부러움 섞인 환성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축하의 박소리가 밤하늘로 퍼져나갔다. 그리고 30여분 뒤, 이번엔

는 반대편 좌대에서 환성이 울렸다. 이정오(기술) 회원이 31Cm 짜리 월척을 건어 올린 것이다. 장마가 길었던 탓이었을까... 며칠째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저수지에는 작년과는 달리 녹조도, 적조도 없었다. 수온도 적당했다.

따라서 곤들은 밤새도록 2~30수씩 고기를 잡아 원없이 손맛을 봤다고 즐거워들 했다. 특히 이정오 회원은 월척 이외에도 큼지막한 고기 30여수를 포함해서 50여수를 잡느라 밤새도록 화장실 갈 틈도 없었다고 자랑을 했다.

그런가 하면 이방근(관리) 회원, 오랜기간 눈을 치료하느라 고생을 하면서도 낚시 행사에는 한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모범생인 그가

새벽녘에 50Cm 짜리 잉어를 걸었는데, 그 잉어가 좌대 밑으로 낚싯대를 끌고 들어가는 바람에 손도 써보지 못하고 놓치고 말았으며 한동안을 아쉬워해 옆사람들을 안타깝게 했다.

낚싯꾼은 놓친 고기를 더 아쉬워 한다는 사실 이 확인되는 순간이기도 했다. 이번 밤낚시에는 사무처 진행요원 2명을 포함해서 20명이 참가했다.

글/ 최준식 사우회 사무처장

/한문공부방/ 유희근의 논어 이야기 9

- 돈과 권력과 여색을 조심하라



재벌그룹 총수로부터 수십만 달러와 최고급 시계를 받은 국세청 고위간부들이 좁은 감방에 수감됐다.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고위층 인사들이 철창신세를 지고 있다.

외국에서 국가대사를 앞두고 술과 여자에 얽힌 일로 국가적 망신을 초래한 사람도 있다.

“전전궁궁(戰戰兢兢)하여, 여림심연(如臨深淵)하며, 여리박빙(如履薄冰·휘호)하라.”

논어 태백편에 나온다. “전쟁터에 임한 듯 조금도 허점을 보이지 말고, 깊은 연못가에 있는 것처럼 조심하고, 얇은 얼음을 밟는 것처럼 조심하라.”

특히 관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딱 맞는 말이다. 돈으로 권력과 결탁하지 말고,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지 말고, 女色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다.

중국 풍도가 쓴 다음의 시를 잘 새겨보자.

구시화지문(口是禍之門)이요, 설시참신도(舌是斬身刀)라. 폐구심장설(閉口深藏舌)이면, 안신처처뢰(安身處處牢)라. “입은 재앙의 문이요, 혀는 몸을 자르는 칼이라.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감추면, 가는 곳마다 몸이 편하다.” 얇은 얼음판에 있는 것처럼 말조심하라는 뜻이다.

유희근

(청소년 적십자 후원회 부회장)



세상사 알리고 설켜서 흐르네



· 1976년 MBC보도국인사
· 1987년 도쿄특파원
· 2003년 포항MBC사장
· 2006년 MBC감사

1975년 1월, 한 유력인사 부인의 치정사건이 터졌다. 사모님과 신인가수가 주역으로 등장한 전대미문의 이 스캔들은 한 가문의 비극이면서 한편으로는 흥행요소를 두루 갖춘 막장극으로 세간의 뜨거운 화제를 불러 모았다.

그 전말은 이랬다. 군 장성출신 J씨는 H건설 사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그의 딸은 모 여대 메이퀸 후보 출신으로 대형 병원 장 아들과 혼담이 오가는 중이었다.

권세, 재력, 미모까지 겸비해, 힘없고 돈없는 못 서민들의 선망과 질시를 한몸에 받을 만 했다.

화근은 사장의 부인, 즉 메이퀸 후보의 모친 K여사였다. K여사는 유독 연예인들에게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당시 대형 맥주 홀에는 가수가 출연하기도 했는데 K여사가 신촌 맥주 홀에 들른 날, 21살의 신인 가수 T가 무대에 올랐다. 나이 선 가까운 K여사가 눈 여겨 보다가 노래를 끝낸 그를 불렀다.

“노래가 참 좋네요, 기회있으면 또 보기로 하고...혹시 내가 도와 줄 일이 있는지...”

“감사합니다. 사모님...”
테이블에 마주 앉은 중년 부인과 애송이 가수는 아마 이런 식으로 물꼬를 텃을 것이다.

이 후 거액의 용돈을 매개로 한 두 사람의 관계는 삼류 통속소설의 전개방식처럼 흘러갔다. 사련(邪戀)은 오래 가지 않았다. 김새를 눈치 챈 남편이 뒤를 밟았다. 일곱 달 후, 드디어 두 사람은 불륜 현장에서 덜미를 잡혔고 남편의 고소로 모두 구속됐다.

스캔들이 만천하에 공개되면서 K여사의 남편은 건설사 사장직에 머물러 있기가 어렵게 됐다. 메이퀸 후보 딸의 혼담도 깨졌다. 집안은 하루 아침에 몰락했다. 이렇게 처참하게 추락한 예가 또 있었을까.

이혼 당한 후 부인은 딸과 함께 집을 나왔다. 딸이 왜 모친 편에 섰는 지는 의문이다.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진 모친의 운명이 가련해서 었을까. 모르는 사연이 또 있었

나비효과인가, 연기법인가? 김 승 한 보도

던 것일까. 아무튼 모녀는 살 길을 찾아야 했다. 셋집을 구해 들어 간 모녀는 호구지책으로 방배동에 조그만 카페를 차렸다. 모친은 셋방에서 술안주를 만들어 공급하고 딸은 마담으로 나섰다. 예상밖으로 카페는 연일 문전성시를 이뤘다. 메이퀸 후보라는 후광에다 모친의 기구한(?) 사연이 가세한 결과였다.

당시 이 카페를 부지런히 찾았던 지인 S군이 있었다. 신데렐라 옷을 벗고 저자거리에 나앉은 그 녀에게 연민을 느꼈는지, 주홍글씨가 새겨진 모친을 버리지 않고 억척스레 새 삶을 꾸리는 모습에 감동했는지는 모르겠다. 그 둘은 마침내 결혼에 이르게 된다. 여기까지는 지인 S군의 개인사로 국한된다.

기막힌 사건은 그 후에 벌어졌다. 건설사 사장이 물러나자 아래 임원들이 줄줄이 승진했다. 대체적으로 한 사람의 불행은 다른 사람의 행운으로 이어진다. 임원 가운데 맹렬한 추진력으로 오너의 신임을 듬뿍 받은 이가 있었으니.... 그는 부사장, 사장, 회장을 거쳐 마침내 최고 권력자의 지위에 오르게 된다.

3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S군의 지인들 다섯명이 술자리에 모여 아득히 그 때의 기억을 떠올렸다.

“S가 이민 떠난 지도 30년이 넘었군”

“가수 T가 그 날 맥주홀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S의 결혼도, 이민도 없었을 것이 고 최고 권력의 향방도 달라졌을지 모르는 것 아닌가? 나비의 날갯짓이 비바람을 일으키듯이 가수 T의 나비효과가 엄청난 태풍을 몰고 온 거야”

“아니지, 나비효과는 하나의 원인이 특정한 결과를 낳는다는 소위 인과율적 분석에서 나온 건데, 그건 자연과학이지. 인간사, 사회현상을 나비효과로 해석하는 건 무리야. 오히려 삼라만상이 모두가 얽혀 있다는 연기법(緣起法)으로 본다면, 우주의 전 요소가 다 관련한 것이 되지”

“나비효과인지 연기법인지 모르겠지만 모든 인생이 다 그런 것 아냐?”

“운명이다. 운명... 자, 한 잔 쭈욱 들지”
글쎄, 그냥 운명일까?
무더위까지 겹쳐 더욱 답답한 밤이었다

회원동정



차 인 태



이 현 규



안 재 기

차인태(ANN)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북5도 지역회의 부의장

前제주MBC사장-평북지사-경기대학교다중매체영상학부장. 지난 7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북5도지역회의 제16기 부의장으로 선임됐다.

이현규(보도) 안재기(보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으로 위촉

또 이현규회원(보도,전 동아영상대학 교수), 안재기회원(보도,전 MBC아카데미 상무)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으로 위촉됐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1980년대 초에 설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정부의 대북정책수립을 위한 국내외 의견을 수렴하고 건의한다



양영철(보도)

원로 회원들에게 오찬대접

문기회회장. 7월23일, 사우회 사무실을 자주 찾는 원로회원 10여명을 광화문에 있는 오션해물뷔페 식당으로 초청해 점심을 대접하고 장마철 건강을 기원했다.



윤정식(보도)

KT CFT 부사장으로 취임

前청주-충주MBC사장. 7월 26일 KT CFT(Cross Functional Team)부사장으로 취임했다. CFT는 방송과 통신, 뉴미디어와 올드미디어, 유선과 무선의 기능을 통합 또는 융합해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KT의 미래 전략 회사이다. 임기는 2016년까지 3년이다.

연회비 내신분들

※연회비는 1년에 2만원이며 외환은행 서대문지점 071-13-14297-3 문화방송사우회로 보내주시시오.

평생회비

배수현(관리)7/25	이준희(보도)7/26	이영춘(편제)7/31	김영철(편제)8/05	양운주(기술)8/14
이영철(기술)8/16	정무용(기술)8/20	안우정(편제)8/21	이창호(기술)8/23	김충식(ANN)8/27
고 진(보도)9/02	최창업(업무)9/02			

연회비

7월 김귀현(13) 김동오(12~16) 김영철(09~12) 김용관(13) 김중남(08~12) 김형국(13) 김희철(10~13) 박연식(13) 박영선(10~13) 박해선(13) 양홍열(13) 염재용(14) 오효진(10~13) 윤재민(12~13) 이경열(13) 이승재(13) 이양길(11~12) 장효상(13) 정 군(13~15) 정길용(13) 정동영(대구,13) 진성창(13) 홍기준(11~13, 80세납부끝) 황기찬(13) 황우성(12~13)

8월 광영범(13) 김중연(14~15) 이명기(11~13)

경조사항

경 사

팔순	민상근(편제)10/05	강준오(전주)11/01	이영환(기술)11/07	장인숙(미주)11/12
고희	박순웅(편제)10/13	이병훈(편제)10/14	임두호(기술)11/07	임영규(기술)11/07
	윤상준(편제)11/10	최명구(기술)11/22		
회갑	구영희(보도)10/05	박영채(기술)10/07	조현모(보도)10/07	한귀현(관리)10/10
	홍학표(업무)10/16	이인숙(ANN)10/18	이선호(보도)10/20	박상봉(편제)10/21
	김한모(업무)11/01	조병욱(관리)11/01	이수향(보도)11/14	권선장(관리)11/15
	김연두(관리)11/15	최 천(기술)11/24		

결 혼

정국록(보도)장남8/15	문장환(기술)장남8/25	이근철(편제)아들9/14	김순배(기술)차남9/15
이승재(기술)3녀9/28	박춘우(관리)차남9/28		

부 음

이명기(편제)장인상7/16	김익원(편제)장인상7/28	김영한(관리)모친상7/29	김영택(보도)장인상8/19
정준모(관리)장인상8/26			

- 표상열(편제) : 8월6일 폐암으로 별세. 향년 85세. 1969년 TV 개국을 앞두고 41세의 늦은 나이로 미술부에 입사해 10년동안 세트 제작 업무에 종사했다. 남시를 좋아해 건강이 나빠지기 전까지는 대회가 있을 때마다 빠지지 않고 참석한 열성파였다.

바로 잡습니다

사우회보 제18호(7월15일 발행) 전화번호 변경 내용 가운데 김진영(편제) 회원 전화로 돼있는 010-5933-2549번은 서규석 고문의 전화번호 이기에 바로 잡습니다.

신규입회

7/25 裴守漢(관리) 010-8991-4518 02-2201-3219 광진구 구의3동 현대A 214-1702
7/26 李俊熙(보도) 010-9105-1297 070-8264-7289 양천구 목5동 907-23 현대파크빌 B-1802
7/31 李如椿(편제) 010-8887-8063 02-6337-8053동작구 대방동 현대A 201-1101
8/05 金永哲(편제) 010-8981-0672 031-889-6272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행원마을 117-1601
8/14 梁允柱(기술) 010-8325-1854 070-7574-7853 공주시 의당면 돌로루2길 25-8 (의당면 청룡리 54-1)
8/21 安祐廷(편제) 010-3741-6435 02-3785-0679 용산구 소월로 377 남산맨션 1010호 (한남동)
8/23 郭泳範(편제) 010-5223-6894 02-815-6894동작구 대방동 376-3
8/27 金忠植(ANN) 010-3915-2391 02-565-8507 성동구 옥수동 4 현대A 105-801

전화/주소변경

▶ 전화번호 (특히 핸드폰)가 바뀌었거나 주소가 변경되신 회원님들께서는 사우회사무처 (02-722-7416)로 바로 연락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I 고문 I

서규석 010-5933-2549

I 편제 I

고석만 강남구 인주로 30길 57, 타워텔리스 F-2209
고장석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527길 80, 204-2704 (중동롯데캐슬에코)
김관영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16, 506-1006 (신갈동 갈현마을)
김명수 서초구 잠원동 33-11 월드메르디앙 101-1402
박복만 010-3744-7673
심재영 010-8837-7724
오명환 010-9006-2168
이궁희 용산구 이촌동 300-10 점보A 1206호
이승문 010-6234-4897
이한철 강서구 화곡동 1149 화곡보람A 1003-201
정 군 010-5232-0307
최근수 의정부시 민락동 691-1 산들마을 길훈A 204-1002

I 보도 I

김기도 010-8994-8863
배귀섭 031-214-9634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149번길 270, 하-401
이상진 강동구 성안로3길 20-22, 202호 (성내동 해동빌라)
정영환 010-7167-1247
정진철 010-4567-6334
최영인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로 109 백송마을 307-109

I ANN I

박민정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527길 80, 204-2704

I 기술 I

김순배 010-4281-2081
문장환 원주시 단구동 중앙하이츠A 101-702
김경일 010-4213-3328
김병문 010-4315-6301
김애희 010-3930-2490
김영관 010-4311-5580
김창천 010-2351-2692
김희철 인천시 중구 중산동 1872-1 신명스카이뷰 741-1104
박춘우 010-8698-8959
오병식 수원시 팔달구 화서1동 화양로 5번길 12-6
윤준구 용인시 기흥구 동백8로 90, 모아미래도A 2402-603
은정기 010-2883-9684
이의린 마포구 신수동 93-94 (1층)
임창영 010-8638-5671
대전 I
신병호 용인시 수지구 대지로 77 휴먼빌 104-202
춘천 I
임성전 010-6370-5713